

KIA 윤석민 “이 날을 기다렸다”

776일 만에 선발 ... 내달 2일 두산전 출격
“생각보다 빨리 복귀 ... 올 시즌 끝까지 가고파”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776일 만에 선발투수로 돌아온다.

KIA 윤석민의 복귀전 날짜가 확정됐다. 윤석민은 오는 6월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마운드를 다시 밟는다.

윤석민의 1군 등판은 지난 2016년 10월 5일 대구 삼성전 이후 605일 만이다. 선발로서의 등판은 2016년 4월 17일 넥센 홈경기 이후 776일 만이다. 이날 윤석민은 102개의 공을 던지면서 9이닝 9피안타 1볼넷 3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했지만, 팀이 1-2로 지면서 완투패를 기록했다.

넥센 히어로즈와 홈경기가 열린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하며 복귀전 준비에 몰입한 윤석민은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웃으며 합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신경써서 운동하고 회복하겠다. 끝까지 올 시즌을 보내고 싶다”며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상보다는 빠른 복귀에 대한 소감도 언급했다.

윤석민은 “그동안 재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어깨(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안 돌아와서 다시 공을 못 던질까봐 걱정을 했다. 아플 걸 참고 가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힘들었다”며 “그래도 올 시즌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복귀하게 됐

다.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1군에서 공을 던지게 됐다. 연락을 받고 기분이 좋았다. 1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언급했다.

다시 윤석민의 시즌이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아프지 않고 던지는 게’ 우선 목표인 윤석민은 떠나있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지울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윤석민은 “지난해 팀이 잘 되고 우승까지 했는데 내가 거기에 없었다. 팀이 좋을 때 없으니까 심적으로 힘들었다. 그래도 힘든 시기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동기부여도 됐다”며 “2·3군에서 던지면서 어깨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 통증은 없고, 생각보다 감각은 좋았고 재구도 잘됐다. 던지다 보면 회복이 될 것이고 더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더 좋아진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석민의 복귀와 함께 주말 두산전 로테이션에도 변화가 생겼다.

29일 선발로 나선 팻딘에 이어 임기영-헥터가 주중 넥센전 마운드를 책임지게 되며, 양현종과 윤석민이 각각 6월 1일과 2일 두산을 상대로 선발로 나선다. 그리고 일요일 선발은 유동적이다.

일단 두산에 약한 모습을 보였던 한승혁이 두산 두 경기에서 통틀리프로 대기를 할 예정이다. 한승혁의 불펜 등판 여부와 팻딘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일요일 선발이 한승혁 또는 팻딘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경기가 열린 29일 1군에 합류했다. 윤석민은 오는 6월 2일 두산전에 선발 출격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한승택 “홈런 영상보니 산책하는 듯 뛰더라”

덕아웃 T 특특

▲점점 더 아팠어요 = 경기에 집중하는 아픈 것도 몰랐다는 한승택. 지난 27일 NC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온 한승택은 4-0으로 앞선 4회말 선두타자 노진혁의 타구에 오른쪽 허벅지를 맞았다. 한승택의 몸에 맞은 공은 유격수 김선빈이 있는 곳으로 튀었고, 유격수 땅볼이 기록됐다. 한승택이 괜찮다는 신호를 보이면서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다. 한승택은 “처음에는 괜찮았다. 아픈지도 모르고 공을 던졌는데, 나중에 점점 더 아파더라”며 웃은 한승택은 “지금은 멍이 시퍼렇게 들었다”고 말했다. 또 “신기하게 그날 석민이 형도 2군에서 공을 던졌는데, 같은 부위에 맞았다고 했다”며 웃었다.

▲발이 안 나가더라고요 = 홈런 세러머니가 어색했던 초보 홈런타자였다. 지난 25일 무릎 부상으로 빠진 백용환을 대신해 1군 엔트리에 등록된 한승택은 이날 선발로 출전해 홈런 두 개를 터트리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날 4회에 터트린 솔로포는 한승택의 프로 데뷔 홈런이었다. 첫 홈런에 이어 2호포까지 연달아 쏘아 올린 한승택은 “첫 홈런은 넘어간 지도 몰랐다. 잘 맞기는 했는데 늦은감이 있어서 펜스 앞에서 잡힐 것으로 생각했다”며 “들러보는 데 아무도 안 움직여서 넘어갔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또 “그라운드를 둘러보고 하는데 발이 안 나갔다. 뛰고도 뛰었는데 나중

에 영상을 보니 산책을 하는 모습이라”고 웃었다.

▲고맙습니다 = 마산 원정에서 프로 데뷔 홈런을 터트린 또 한 사람. ‘예비역’ 박준태는 27일 NC 김건태를 상대로 9회 스리런을 날리면서 12-1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6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리는 등 장타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1군 무대에서는 처음 기록한 홈런. 박준태는 “2군에서 처음 왔을 때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좋았을 때 품이 기억이 안 나서 고생했었다”며 “타석에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매 타석에 집중하자고 생각했다. 포인트를 앞에 놓고 치자는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넘어갈 줄은 몰랐다. 넘어가는 걸 보고 ‘고맙습니다’라고 했다”고 웃음을 보였다.

▲오디션 3라운드 시작했어요 = 윤석민의 합류와 함께 투수들의 엔트리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윤석민이 6월 2일 등판되면 말소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25일 엔트리에 재등용된 문경찬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문경찬은 “개막 엔트리에서 시즌을 시작했을 때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더 결과가 좋지 못했다. 지금은 한결 편한 마음이다. 공에 힘도 많이 불었다”면서도 “마운드 오디션 3기가 시작했다. 내가 1기 우승자였다(웃음). 석민이 행이 돌아오면서 다시 경쟁을 하게 됐다. 편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

류현진 톱토스 훈련 ... 재활 순조

사타구니 부상으로 부상자명단(DL)에 오른 류현진(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순조롭게 재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9일 미국프로야구 다저스 소식을 전하는 서던 캘리포니아 뉴스 그룹의 JP 훈스트라 기자에 따르면 류현진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을 앞두고 톱토스 훈련을 했다. 류현진은 마운드가 아닌 그라운드 위에서 포수를 앉혀놓고 공을 던졌다. 류현진

은 캐치볼-톱토스-볼펜피칭-시뮬레이션 피칭-마이너리그 재활 등판으로 이어지는 재활 과정을 거쳐 복귀 시점을 타진한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의 톱토스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류현진은 올 시즌 3승 무패, 평균자책점 2.12로 다저스 선발투수 가운데 최고의 활약을 펼치다가 부상 약재에 직면했다. /연합뉴스

KBO는 지난해 넥센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 kt wiz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는 달리 현금 포함된 이번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야구규약에 따라 해당 금액 6억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29일 밝혔다.

지난 해 3월 17일 넥센 강운규와 NC 김한별, 7월 7일 넥센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 등 두 건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 대해 해당 구단은 양도·양수 협정서를 제출했고 KBO는 이를 승인, 공시한 바 있다.

KBO, 넥센 미신고 계약금액 6억 전액 환수키로 구단 간 트레이드서 현금 이면계약 체결 확인

그러나 KBO는 최근 두 건의 트레이드에서 구단이 제출한 양도·양수 협정서와 달리 넥센과 NC의 트레이드에서 1억원, kt와 트레이드에서 5억원 등 총 6억원의 현금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해당 구단에 확인했다.

KBO는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

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번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금액 6억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법률, 금융, 수사,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한 후 이르면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

해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선수가 직접 개입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무효로 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넥센 구단에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추가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 구단에 걸쳐 일정 기간을 두고 규약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기간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가장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여기는 우승 텃밭!

우즈, 메모리얼 토너먼트서 PGA 80승 도전

타이거 우즈(미국)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80승 도전이 ‘영광의 땅’에서 이어진다. 우즈는 3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뷰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890만 달러)에 출전한다. 우즈는 PGA 투어 통산 79승 중 5승을 이 대회에서 수확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연패를 달성했고, 2009년과 2012년에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자신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곳이지만, 마지막 기억은 ‘골육’에 가깝다. 2015년 이 대회에서 우즈는 프로 데뷔 이후 최악의 스코어인 130바파 85타를 쳐 무너졌다. 최종합계 140바파 302타에 그쳐 꼴찌로 대회를 마치는 수모를 겪었다. 이후 그는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다가 3년 만에 돌아간다. 설욕전을 꿈꾸는 우즈는 최근 출전 대회인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서 주말 선전에 힘입어 공동 11위에 자리했다. 뒷심 부족으로 톱10에는 들지 못했으나 3월 발스와 챔피언십 공동 2위,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공동 5위에 이어 올 시즌 세 번째로 좋은 성적을 남겨 이번 대회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 2라운드에서 우즈는 2010년 이 대회 우승자이자 지난주 포트워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정상에 오른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디펜딩 챔피언 제이슨 더프너(미국)와 같은 조에서 경기한다. US오픈을 2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엔 세계랭킹 1위 저스틴 토마스(미국)를 필두로 ‘톱5’ 중 4위 은람(스페인)을 제외한 4명이 출전해 샷 감각 조율에 나선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리키 파울러(미국) 등 강호들도 출격한다. 토마스과 파울러는 패트릭 리드(미국)와 함께 1, 2라운드를 치른다. /연합뉴스

내일 US여자오픈 개막 ... 태극낭자들 출격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제73회 US 여자오픈 골프대회가 31일부터 나흘간 미국 앨라배마주 쇼일 크리크에서 열린다. US오픈은 여자골프 5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서도 가장 큰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다.

총상금이 500만 달러로 여자 대회 가운데 가장 많다. US오픈을 제외하면 총상금 400만 달러가 되는 대회도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다.

1946년에 창설돼 대회 역사도 메이저 대회 중 최고를 자랑한다. 또 한국 선수들도 좋은 인연을 맺어왔다.

20년 전인 1998년 박세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신음하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겼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한국 선수들이 8번이나 우승했다.

2014년 우승한 미셸 위도 부모가 한국인인 교포 선수라 최근 US여자오픈의 ‘한국 선수 강세’는 그야말로 엄정했다. 지난해 US오픈도 한국 선수들이 상위

10위 안에 8명이나 들어 ‘US오픈이 아니라 한국오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중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박성현과 당시 아마추어 신분이었던 최혜진이 전 세계 골프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시즌 미국에 진출한 박성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전하는 앞에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박성현은 이 우승으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상금왕, 신인상을 휩쓰는 발판을 만들었다. 최혜진은 아마추어 자격으로 지난해 이 대회에 출전, 박성현에 2타 뒤진 2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2승을 따낸 최혜진은 8월 프로로 전향, 이후 KLPGA 투어에서 한 차례 더 우승하는 등 ‘업없는 10대’로 맹활약 중이다. 다만 박성현과 최혜진은 지난해 기세가 한풀 꺾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 반전을 도모한다. /연합뉴스